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

## 개념(기본부터 배경 지식으로)

기본 개념- 주제/ 세부 정보/ 구조 찾는 법

심화 개념- 세부 정보가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

풀이 스킬- 기본 풀이 원리/ 보기 문제/ 'ㄱ'에 대한 이해 문제

배경 지식- 과학/ 경제/ 철학 관련 용어와 기초적인 프로세스

*ex) 현존*

*현존은 '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생성 된다'라고 이해하면 돼. 쉽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현존의 핵심이야.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'생성 된다' 그리고 '지금'라는 표현이야. 현존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생성 되고 변화하게 돼. 변치 않는 자기 자신과 본질은 현존과는 매우 상반되는 개념인 것이지. 현존한다는 것은 자기 안의 본질 그 무엇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무엇인가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.*

*'지금'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야. 지금 당장 '지금'이라고 외쳐봐 그 '지금'은 바로 과거가 돼버려. 즉 지금 역시 끊임없이 과거라는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'차이'에 의해서만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야.*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*쉽게 현존을 이해해 보자면 불타는 나무를 생각해보자. 불타는 나무는 불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돼. 이때 나무의 본질과 동질성은 파괴되게 되지. 이때 이 나무가 바로 현존자 즉 현존하는 것이고 불타는 현상이 현존이야.*

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리고 풀이 스킬은 나중에는 비슷해짐

하지만 배경지식은 끝까지 차이를 보임

늘지 말고 미리 미리 배경지식 정리해두자

## 추천 책-

'교과서 독해/오르비 북스'(강추)

'basic 중학생을 위한 과학 용어 사전'

'철학 라이더를 위한 개념어 사전(심화)'

## 적용(매일 매일 주 5일은 반드시 지키기)

### 어떤 문제 풀래?

하루에 모의고사 독서 2지문// 문학 2지문// 화작문 각 1지문씩 풀자

문제는 가능하면 선별된 것을 푸는 것이 좋다

'수능 기출- 평가원 기출- 사관학교 기출- 김봉소 모의 or 상상 모의- 예전 수능&

리트' 순서를 추천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## 얼마나 풀래?

문제 풀이는 매일 40분

## 어떻게 풀래?

'독서 문학 화작문 순'으로 풀기

문제 풀기 전에는 기본/ 심화/ 풀이 개념을 한 번 리마인드 해보기

문제 풀 때는 개념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읽어가기

독해에 5분 문제 풀이에 1분 30초-2분의 시간을 쓰기

가능하면 '문제의 모든 선지는 빠르게 글의 개념으로 바꾸기'

EX)

글: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,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,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.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을 실험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누적시켜 가는 것이다. 하지만 관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. 그는 기존의 지식과 여러 조건들이 같이 고려될 때만 가설에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.- 2017 수능 변형-

포퍼: 가설에서 예측이 논리적 도출, 예측을 통해 가설을 확인 & 지식을 누적

관인: 가설과 여러 조건을 같이 고민해야 예측이 도출, 예측만을 통해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 X & 지식의 누적 X

선지: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누적적 지식(포퍼, 과학 지식의 누적)은 기존 지식에 관한 고려가 있을 때만

가능하다(카인)X

## 피드백(적용 이후 바로 진행)

### 피드백(문제-원인- 해결/ 독해)

#### 채집하고 바로

독해의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

글을 읽다가 당황했던 부분을 이해하자

이때는 바로 옆에 도표를 그리거나 구조를 그려둠으로써

#### 그 부분의 주제

그 부분에서 어려웠던 개념 간 관계를 이해해야 해.

이후 글 읽기가 어려웠던

원인과 해결책을 정리하자.

독해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어떤 독해개념을 써야 하는 지 애매한 것

이해가 어려운 것

마지막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누어

각각

'독해 기준점을 수정'하고

'기본적인 용어와 과정'을 정리해 이해하고

집중력을 높이는 자세와 '어려울 때 넘어가는 연습'을

해보자

이 과정은 지문 당 15분을 넘기지 말자

EX)

*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에 집중해야지!*

*근데 이게 사건인가 저게 사건인가 헷갈린다. ㅏㅏ*

*쉽게 인물 갈등 배경에 동그라미 치는 걸로 바꾸자!*

## 오답 관리(근거 찾기/ 문제)

이렇게 독해 피드백이 끝났다면

이제 문제에 관한 피드백이 들어가야 해.

정리할 문제는 우선 틀린 문제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---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찍어서 맞춘 문제

답이 헛갈렸던 문제들을 포함

정답에 확신이 없었던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해.

바로 노트에 하기 보다는 바로 바로 시험지에 하자.

이때는 각 선지의 근거를 찾는 연습들과

그 근거에서 선지를 이끌어 내는 논리를 익히는 연습이

필수적이야.

우선 각 선지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위해서는

각 선지에 대응하는 5가지 색깔의 펜을 준비하자.

그리고 다시 한 번 문제를 풀면서

글에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바로 바로 체크하자.

이렇게 체크된 이후에는 글의 내용들이

어떻게 선지의 내용으로 변화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.

이 부분이 논리와 관련된 부분이야.

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은 문학과는 다르게

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

일반화 시키거나 예시를 활용해 바꿔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이를 통해 글과는 약간 다른 선지가 나오게 돼

따라서 만점을 얻기 위해서는

오답할 때 글에서 근거를 찾는 것 뿐 아니라

이 근거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등장하는지도 봐야해.

사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

이 과정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논리가 들어가거나

수긍 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

이 논리를 확인 하는 것은 수능과 평가원 지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자.

이렇게 근거와 논리를 찾았다면

이제 풀이 스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

구체적으로 보기 문제라면

보기를 보기의 내용과 연관되는 문단이나 내용으로 바꾸어 주자.

*EX) 김봉소 모의고사 단락 글*

*전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측정 도구의 정밀도 탓이 아니다. 이는 입자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.*

*단일한 파장의 파동은 그 파동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의 운동량은 고정되어 있으나 퍼져 있으려는 파동의 성질로 인해 그 위치가 '어느 곳에 있다'라고 확정할 수 없다.*

*입자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파동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데 파동들이 많*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 오르비 교대점 서성수 국어

#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

---

믿고 따라라 결과로 답한다/국어 계획

*이 중첩되어 있을수록 위치의 파악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지만 그 부분의 운동량을 확정하기는 힘들다. 그래서 양자 역학에서는 어느 위치에 입자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느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만 의미가 있다.*

*가능한 선지: 전자는(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. 운동량과 위치 확정이 불가, 확률) 특정 위치에서 운동하게 된다.(NOT 확률, YES 위치 확정)*